

민주 “尹, 중·러 자극해 경제·안보에 심각한 문제”

‘한미정상회담’ 여야 반응 차이...국힘 “최대 성과” 강조 유승민 전 의원 “속 빈 강정”...야당 “빈손·대국민 사기극”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미 성과를 홍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빈손외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 경제·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에 새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추켜세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문

재인 정권에서 흔들리고 무너졌던 한미 양국의 신뢰와 우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완벽히 복원된 걸 넘어서 한단계 더 발전했다”며 “지난 5년간 비정상 외교로 무너진 신뢰와 잃어버린 국익이 정상화되는 모습이 천만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전쟁을 막고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라며 “공식적으로 간판은 핵 공유로 안

열었지만 사실상 내용은 핵 공유”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대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라고 언급하는 모습이 제일 인상 깊었다”며 “윤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윤(비윤석열)계인 유승민 전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이 무엇을 얻었느냐는 것”이라며 “화려하고 화려했지만,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좀 당하고 왔다.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할 길을 완전히 우리 스스로 안 가는 것처럼 약속하고 와버린 것”이라고 언급하고, ‘워싱턴 선언’

에 대해선 “빈껍데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현직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상세한 회담 결과와 영향 등을 정부에 따져 묻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오전 국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권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운영위 소집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국민 생명, 안전에 직접

된 사안인 만큼 회담 결과와 향후 영향에 대해 정부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환대를 받으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경제 그리고 안보의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새롭게 생겨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도체·자동차 문제에 대해 어떤 개선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거로 보이고 특히 불필요하게 중국·러시아를 자극하며 한반도 평화 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며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나쁘는데 중국을 자극해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특히 민생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임 원내대표단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국 경제 담당 원내대변인, 김한규 원내대변인, 박 원내대표, 송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전 대표, 오늘 검찰 자진 출두

‘2021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언론에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두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1일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송 전 대표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해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 자택과 후원 조직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검찰 수사가 강도

를 더하자 직접 검찰에 출석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의지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언론과 만나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 체류 중이던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원내수석에 송기현 의원

1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송기현(강원 원주) 의원이 선임됐다. 송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 당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원해 박광온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친낙(친이낙연)계로 분류된다. 검찰 출신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송 의원은 원내 운영을 맡게 된다. 박 원내대표는 정책 분야를 담당할 원내 수석을 별도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취임과 함께 진성준 의원을 원내 운영 수석에, 박찬대 의원을 원내 정책 수석으로 각각 임명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지방정가 라운지

광주 응급환자 신속 이송 개정 조례안 마련

조석호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개정 조례안 이 마련된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민주·북구 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마련 ▲응급의료 분야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응급의료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광주 응급의료기관에는 31만3731명의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응급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해매는 일이 없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신속하게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근거 마련

박필순 광주시의원 발의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민주·광산3)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1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시장이 점검토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신



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알림 등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재난 시 예·경보를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 촘촘한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예·경보 조례는 태풍·홍수·대설·폭염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시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